“연예인전법단, 문화예술 포교 밑거름 될 것”

연예인전법단 이끄는 단장 탄탄 스님

11월 22일 공식출범 앞두고
적조사서 사무실 현판식 개최
가수, 시인, 방송인 등 결집해
불교문화 지평 넓히는데 앞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장 탄탄 스님은 11월 15일 적조사에서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포부와 연예인전법의 중요성을 밝혔다.

예술, 문화 분야 전법포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하는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이 적조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11월 15일 적조사에서 연예인전법단 사무실을 마련한 것이다.

11월 22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공식 출범식에 앞서 연예인전법단장을 맡아 문화포교를 이끄는 탄탄 스님(적조사 주지)은 “전법단이 교도소, 요양원, 복지관, 학교 등 전법포교 현장에서 문화포교 효과를 극대화할 불자연예인들의 구심점이 되도록하겠다”고 연예인전법단 사무실 개소를 겸한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은 김국환, 김흥국, 장미화 등 원로가수들을 비롯해 산악인 엄홍길, 방송인 이익선, 만담가 장광팔 씨 등 문화체육예술계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가수분과와 연극분과 등 세분화된 분과에 총 20여 명의 지도법사와 160명 가량의 단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법단 구성에는 불교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고 평소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과 인연이 깊은 탄탄 스님이 큰 역할을 했다. 탄탄 스님은 “현대사회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예술의 범주는 음악과 춤 등에 머무르지 않고 시와 문학, 평론, 스포츠 등 굉장히 넓다”며 “출범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대중 속으로 찾아가는 불교를 기치로 내건 상월결사에도 적극 동참 중인 탄탄 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연예인들이 스님들과 차 한 잔하며 마음 속 신심을 낼 수 있는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방송에서 기독교 연예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내세우는 모습에서 분개하면서도 정작 불자연예인들을 아끼고 끌어주는 모습이 부족했다. 연예인전법단 출범을 시작으로 불자들이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개신교계에서는 이미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자리잡혀 있기에 먹고살기 위해서 개종까지 고민한다는 불자연예인들의 하소연이 많다”며 “가을 산사음악회 외에도 불교계 언론, 문화관,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불자연예인들의 활동 영역을 적극 넓히고, 무명일 때부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연예인전법단 사무실 현판식에는 이러한 스님의 원력에 동참하는 불자연예인들이 함께했다. 불자가수회장을 역임한 김국환 씨는 “불교계에서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며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한다. 전법단에 동참할 가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담가 장광팔 씨도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연예인전법단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현대사회 포교전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불자연예인”이라며 “연예인전법 활성화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현판식은 이장학 소리꾼 등 전법단원들의 즉석 공연으로 마무리 됐다.

“청소년 불자에게 용기와 희망되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제19회 은정장학금 전달식

11월 12일 동국대 중강당서
학술상, 장학금 등 34명 시상
제14회 나란다 축제 시상도

불교학 진흥과 불교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상,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1월 1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19회 은정장학금 전달식과 제14회 나란다 축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과 상임이사 성월 스님, 이사 성효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장 자승 스님은 상임이사 성월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은정재단은 2002년부터 총19회에 걸쳐 장학 및 학술연구지원과 생활지원금을 통해 인재불사를 확장해 왔고, 14회를 맞은 나란다축제는 2009년 교리경시대회로 시작해 전통문화체험, 국악경연, 케이팝 경연 등 전통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크게 축소됐다가 3년 만에 예년과 같이 얼굴을 마주하며 유익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올해의 큰 의미다. 은정장학금과 나란다 축제가 각자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은정재단은 많은 청소년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국가와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돼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축사에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를 직접 이끌며 불교중흥을 기치로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행을 이끌고 있다”면서 “나란다 축제와 상월결사가 청소년 전통문화의 창달이 불교중흥, 수행정신 함양, 신행포교의 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포교원도 함께 발맞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제19회 은정장학금은 불교단체 부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비롯해 학술상 법장 스님(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장학생 부티홍밍(동국대 대학원 국어국문과 석박사통합) · 현문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4학년) · 무설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1학년) 등 대학생 8명과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6명, 초등학생 1명 등 총 34명이 수상했다. 올해 총 장학금 56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6~17일에 열린 제14회 나란다 축제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개인부문 대상에는 윤태준(우이초 4학현), 박효진(동대부여중 2학년), 강수연(광동고 2학년) 학생이 각각 수상했으며, 단체상은 동대부여중이 수상했다.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에서는 정광고의 ‘로터스’ 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독후감 공모전에서는 오윤겸(동국대WISE캠) · 박준영(호국충용사) 씨가 대학일반부 최우수상을, 이지율(동대부중) 학생이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올해로 19회를 맞은 은정장학금 전달식은 재단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200여 곳의 단체와 5543명의 수혜자를 배출했다. 현재까지 장학금 규모는 31억 4700여 만 원에 달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1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19회 은정장학금 전달식과 제14회 나란다 축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청담대종사의 철저한 수행정신 이어받자”

11월 15일 도선사 ‘51주기 다례재’
진우 스님·문도회 3백여 명 참석



서울 도선사는 11월 15일 호국참회원에서 ‘청담대종사 열반 5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태원)는 11월 15일 오전 11시 경내 호국참회원에서 ‘청담대종사 열반 5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청담대종사께서 만중생에게 던진 설령 금생에 성불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을 건지겠다는 원력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평생 정화불사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앞장섰던 큰스님의 원력과 사상 그리고 가르침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일면 스님은 “육신은 멸해도 법신은 멸하지 않는다는 큰스님의 사자후는 열반에 드신 지 5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빛나고 있다. 앞으로도 큰스님의 설법은 많은 수행자들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추모법문을 통해 “청담 대종사는 한국불교의 기반을 닦으시고 중흥의 발판을 만드신 수행자”라며 “저는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수행자로서의 업적을 기리고 싶었다. 특히 대종사는 성철 스님 등과 함께 봉암사결사를 통해 간화선 수행 가풍을 확립했으며,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금강경〉 강의를 통해 불교의 요지와 핵심을 알리는 데 앞장서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저 또한 청담 대종사의 〈금강경〉 강의를 듣고 재발심하게 됐다”며 “대종사께서는 연기법, 인과법, 공사상 등 불교의 세가지 진면목을 잘 설파하신 뛰어난 강사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도선사 회주 동광 스님도 문도회를 대표해 “청담 대종사는 젊은 시절 전국 선원에서 철저히 정진하시며 모든 수좌들에게 모범이 됐다”며 “추운 겨울에도 누더기 하나만 걸치시고 맨발로 정진하실 정도로 자신에게 엄격하셨다”고 회고했다. 마지막으로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도 “오늘 다례재를 맞아 우리 후학들은 청담 스님의 수행정신을 되새기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진력하길 서원한다”고 밝혔다. 다례재가 끝난 뒤 도선사는 강북구청과 도봉구청에 각각 자비의 쌀 5000kg을 전달하며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추운 겨울 도선사 사부대중의 온정으로 관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열반 51주기를 맞은 청담 대종사는 1950~60년대 불교정화불사를 주도해 조계종 근간의 기틀을 마련했다. 치열하고 철저한 구도역정을 펼친 청담 대종사는 성철 스님 등과 봉암사 결사를 주도하며 수행가풍을 확립했고, 역경, 도제양성, 포교 등 조계종 종단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

한편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과 원행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진우스님, 도선사 회주 동광 스님, 서울 도안사 주지 선묵 스님, 천준호 국회의원,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원심회 34주년…장애인 인식개선 호소

11월 14일, 기념법회 · 토론회 개최
호소문서 “장애인포교 관심” 촉구



장애인과 비장애인 불자들의 소통과 공감에 앞장서 온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심회(회장 김철환)는 11월 13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 34주년 기념법회와 청각장애인 포교 활성화 토론회’를 봉행했다.

1988년 수어통역사 10여 명으로 출범한 원심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기 수어법회를 비롯해 수어 경전과 수어 찬불가 제작, 비장애인 대상 수어교육강좌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불자들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열어가는 것은 물론, 장애인포교를 체계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해왔다.

이날 법회에서 지현 스님은 “보살의 마음으로 자비행을 실천하는 원심회의 노력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원심회에 함께한 모든 사부대중이 소중한 인연공덕으로 장애와 비장애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온 세상에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함께 전하는 선한 도반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이 ‘불교 장애인 포교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류제수 천주교 에파타 성당 사목회장이 ‘천주교 에피타성당 사례’를, 김철환 원심회장이 ‘조계사 원심회 현황과 청각장애인 포교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청각장애인 조계종 포교사를 최초로 배출하고 불교수어를 표준화하는 등 창립 이후 많은 성과를 낸 원심회는 34주년을 맞아 스스로를 점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불교계의 장애인 포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호소문에는 △ 장애인포교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 공간확보 △ 장애청소년 불자 확보 △ 불교 양로시설 · 요양병원 장애인 이용 △ 불교 언론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 등이 담겼다.

김철환 원심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는 불사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면서 “특히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 포교 자체가 장애인 포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일상다감사 ‘감사일기’ 도서 펀딩 출간

중승대 졸업 한산 · 무여 스님
‘100일 감사일기’ 모아 기획
11월 28일까지 텀블벅서 진행



스님들로 구성된 창작집단 ‘일상다감사’가 펀딩으로 도서 출간에 도전한다. 제작될 도서는 빛나는 나를 위한 100일 선물을 주제로 한 ‘지금 여기 감사 일기’다.〈사진〉

도서 출간을 진행하고 있는 ‘일상다감사’는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한산, 무여 스님이 함께 젊은 세대들의 불교유입과 불교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고민하다 고안된 것으로 “내가 필요한 책, 남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됐다.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日常]’이기도 하고, ‘차별 없고 절대 평등한 진여의 상[一相]’이기도 하다. 기도, 염불, 명상, 간경, 사경, 절 등 여러 수행 가운데 현대인에게 가장 알맞는 방편으로 감사일기를 채택했다.

저자인 한산 스님은 2022년 1월 1일부터 네이버카페에서 ‘100일 감사 일기’를 운영하면서 20대부터 70대까지 종교를 불문하고 불특정 회원들과 함께 매일 감사일기 3편을 써오고 있다. 300여 일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만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고 내려놓는 삶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착안, 책을 기획하게 됐다.

일상다감사는 책 출간을 위해 지난 9월 통영에서 1인 출판사 ‘그봄출판사’를 설립했다. 출판사 대표와 디자인은 무여 스님이 맡았다.

그봄출판사 대표 무여 스님은 “기독교 관련 텀블벅에 비해 불교계 쪽에는 텀블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새로운 포교를 지향하는 이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펀딩은 11월 28일 종료된다. 수익금은 중앙승가대, 군부대, 학교 등에도 보시된다. 텀블벅 주소 : https://www.tumblbug.com/100thank

임은호 기자

비구니회, 백제유적서 역사 세우기 염원

11월 12일, 서산 보원사지 · 해미읍성 등 순례

무분별한 성역화 반대 입장문
“공생공존 공동체 문화 희망”



6000여 비구니를 대표하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공공유적 역사 바로세우기를 염원하며 불교 역사가 지워지고 있는 현장에서 걷기 명상을 펼쳤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11월 12일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출범 3주년을 맞아 ‘백제의 미소길 걷기명상 및 공공유적 역사바로세우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 참배로 시작됐다. 이어 서산 보원사지와 가야사지 등 내포문화숲길 걷기명상과 홍성 홍주읍성 서산 해미읍성 순례, 공공유적지 역사바로세우기 발원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공공유적지를 특정 종교 성지가 아니라 공생과 공존의 공동체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간이 되길 희망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가톨릭 성역화 이대로는 안된다’는 제하의 입장문에서 전국비구니회는 “지자체는 지역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이뤄지는 천주교 성역화 사업이 종교화합을 깨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각 지역의 역사공간이 누구에 의해 점유되는 주관적 성지조성보다는 공생공존의 공동체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길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3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1년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님은 “불교역사 바로 세우기와 더불어 공공영역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특정종교의 성지인양 안내문을 세워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바로 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